

무안공항, 개항 이래 첫 매일 국제선 정기편 운항

일본 나리타·대만 타이베이 등 취항 동절기 9개국 18개 노선으로 확대 진에어, 좌석 전체 개별 공급기로 전남도, 15일까지 홍보캠페인 전개

무안국제공항이 개항 이후 17년만에 처음으로 매일 국제선 정기편을 운항한다.

전남도는 오는 15일까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이용률 제고를 위해 무안군, 항공사 등과 합동으로 철도역, 버스터미널, 대학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2024년 무안국제공항 동절기 운항 노선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무안국제공항 동절기 국제선 운항 노선은 △일본 오사카·나리타·나가사키 △대만 타이베이 △태국 방콕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라오스 비엔티안·루앙프라방 △필리핀 마닐라 △중국 항저우·장가계·여강 △캄보디아 시엠립 △베트남 나트랑·다낭·달랏·하노이·푸우옥 총 9개국 18개 노선으로, 지난해 동절기보다 3개국 6개 노선이 늘었다.

이번 캠페인에선 2007년 무안국제공항 개항 이후 처음으로 매일 운항되는 일본 나리타, 오사카, 대만 타이베이 정기편 국제노선과 동절기부터 새롭게 운항하는 태국, 말레이시아 등 다변화된 노선을 중점 홍보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6일 무안군과 함께 나주역과 목포대학교 등에서 '두근두근 무안국제공항' 홍보물을 배포하고 운항스케줄, 이용가이드, 동절기 운항 노선 등을 설명했다. 전남도는 오는 15일까지 서부권, 동부권, 광주권 등 권역별로 현장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는 국내 대표 저비용 항공사인 진에어가 이번 동절기 노선부터 매일 정기편을 운항, 공급 좌석 전체를 개별 공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진에어는 그동안 80% 이상 여행사를 통해 좌석을 공급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좌석 전체의 개별 공급에 나섰다. 매일 정기편 운항과 개별 좌석 공급은 무안국제공항 개항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전남도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노선의 성공적 운항과 항공기 운항 방식의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운항 노선 다양화를 위해 제주항공이 취항하는 일본 나가사키, 대만 타이베이, 태국 방콕,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노선 등에 대한 홍보 및 이용률 제고 지원에도 나섰다.

무안국제공항 배후 시장 확대를 위해 전북도와 전북 14개 시군, 광주시와 광주 5개 자치구에 '무안국제공항 동절기 운항 노선 홍보 및 활성화 협조 요청' 공문과 홍보전단을 발송하는 등 협력 요청에도 나섰다.

한편 무안국제공항의 10월말 기준 이용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90% 상승하는 등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면서 전남도가 올해 목표로 정한 이용객 50만명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광민 전남도 도로정책과장은 "무안국제공항이 하루빨리 활성화돼 서남권 거점 공항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공항 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변화된 노선과 개항 이후 17년 만에 운항되는 첫 데일리 국제선의 성공적 운항 지원을 위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jhyun.oh@jnilbo.com



광주신세계, 1인 가구 맞춤형 상품 '눈길' 광주신세계가 1인 가구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발맞춘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본관 8층 '드롱기' 매장에서 만날 수 있는 뉴데리카 커피머신은 미니멀한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1인 가구나 MZ세대 고객들로부터 관심이 높다. 뉴데리카 커피머신은 원두 분쇄부터 커피 추출까지 반자동으로 지원해 집에서 간편하게 커피를 즐기고 싶어하는 고객들에게 인기가 많다.

광주신세계 제공

현대차 부품사 노조 파업...기아 광주공장 생산 차질

1·2공장 하루 1200여대 영향

현대자동차그룹 부품 계열사 노조의 파업으로 기아 광주공장도 자동차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6일 자동차 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트랜시스 충남 서산 지공장의 파업이 한 달여 동안 계속되면서 기아 광주 1공장과 2공장에서 하루 1200여대가량 생산 차질을 빚고 있다.

기아 광주 1공장에서 셀토스, 쏘울, 광주 2공장은 스포티지, 쏘울 등을 생산하

고 있다. 기아 광주공장 전체 하루 생산량이 2100여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생산량이 절반가량 감소했다.

현대트랜시스는 무단변속기를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파업으로 인해 현대차 울산1공장은 일부 생산라인을 중단한 상태다.

지난달부터 생산 차질을 빚는 기아 광주공장은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차질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박소영 기자

보건복지부, 전남대서 '연금개혁 설명회'

생활복지학과 60여명 대상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전남대학교에서 대학생 대상 상생의 연금개혁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전남대학교 생활복지학과 재학생 6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4일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연금개혁 추진계획'의 3대 분야(지속가능성 확보·세대 형평 제고·노후소득 강화)와 그 세부 과제를 설명하고, 국민의 노후준비를 위한 국민연금의 필요성, 크레딧 등 청년을 위한 국민연금 제도, 기금 운용 성과 등도 함께 안내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연금개혁의 중요 당사자인 청년세대로서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의견을 자유로이 개진했다.

나다운 기자

기아, 인증 중고차 토탈케어 서비스 '리멤버스' 출시

품질인증서·세차키트 등 제공

기아가 6일 인증 중고차 고객을 위한 프리미엄 토탈케어 서비스 '리멤버스'를 출시했다. 리멤버스는 차량 출고부터 사후 관리까지 인증 중고차 고객에게 체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한다.

차량 출고 단계에선 △외관 보호를 위한 프리미엄 코팅 서비스 △200개 검사 항목 품질 인증서 △셀프 세차 키트(세차 샴푸, 유리세정제, 실내클리너, 휠클리너, 타이어 광택제, 외부광택 왁스 등 6종)를 제공

한다. 셀프 세차 키트는 자동차 내·외장 관리 리브랜드 '소낙스(SONAX)' 제품이다.

사후관리 서비스도 폭넓게 지원한다. 보증 기간은 최대 1년, 2만km까지 연장해 준다. 차량 품질과 사후 관리에 대한 인증 중고차 고객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애플리케이션(앱) 기반 '기아 커넥트'도 1년간 무상 제공한다. 차량 원격제어, 길 안내, 디지털 키 등 첨단 커넥티드 카 기능을 중고차 고객도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최대 10만원 상당의 '기아

멤버스' 포인트 △전문 상담사의 기아멤버스 및 리멤버스 혜택 안내 서비스 △국내 85개 '소낙스 카케어' 지점에서 이용 가능한 세차 서비스(나이스케어) 쿠폰 등을 제공한다.

리멤버스 출시와 함께 기아는 인증 중고차 출시 1주년 기념 이벤트도 마련했다. 기아 인증중고차 공식 홈페이지(<https://cpo.kia.com>)에 접속해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캠페인 영상을 시청하고 퀴즈에 참여하면 경품 행사에 응모할 수 있다.

박소영 기자

소진공, '송정떡갈비' 온누리상품권 이벤트

카드형 사용 촉진 행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카드형 상품권) 이용 확대를 위해 광주 송정떡갈비골목의 '송정떡갈비'와 스타가맹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송정떡갈비'는 광주 송정역 앞 상권 활성화 구역인 '송정떡갈비 골목'에 위치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며, '송정떡갈비' 매장과 '송정떡갈비골목' 인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320여곳의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형 상품권 사용촉진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12일부터 16일까지 각각 진행하며, 카드

형 상품권 앱 설치 고객에게 카드형 상품권 쿠폰을 증정한다.

또 '송정떡갈비'와 인근 가맹점에서 카드형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가슴기, 텀블러, '송정떡갈비' 교환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추첨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

소진공은 카드형 상품권 및 가맹점 이용 확대를 위해 파급력과 화제성이 높은 100개의 가맹점을 스타가맹점으로 선별하고 각종 홍보와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이번 이벤트는 12호 스타가맹점인 광주의 '송정떡갈비'와 함께 진행하며 전체 스타가맹점은 온누리상품권 홈페이지(<https://onnurigi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정떡갈비'는 1976년에 개업해 지금까지 전통을 이어오는 식당으로 '광주 5미' 중 하나인 '송정떡갈비'의 원조이다. 대표 메뉴인 떡갈비는 굵게 다진 돼지고기와 소고기로 만들어 부드러운 식감에 풍부한 육즙이 특징이며, 미리 비벼놓은 밥에 육회를 올린 육회 비빔밥과 기본으로 제공하는 빠국도 인기이다.

카드형 상품권은 '온누리상품권' 앱에 소비자가 보유한 카드와 계좌를 등록하면 10%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충전하고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전국 2000여개의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자세한 전국 가맹점은 '온누리상품권' 앱의 '가맹점 찾기' 기능을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나다운 기자

이마트, 11월 '가격파격 선언' 행사

김장·초겨울 먹거리 '최저가'

이마트가 오는 28일까지 '가격파격 선언' 행사를 연다.

가격파격 선언 테마는 '김장 물가 안정'과 '초겨울 먹거리 준비'다. 이마트는 11월 가격파격 선언 3대 핵심 상품으로 '양파', '국내산 돈아다리', '하림 더미식상온 국당류 6종'을 선정해 최저가 수준으로 판매한다.

먼저 김장 필수 채소인 '양파' 1방(3kg, 국내산)을 정사가 대비 25% 저렴한 4900원대에 선보인다. 이마트에서 평

시 한달 간 판매되는 물량 대비 2배 이상 많은 900톤을 준비했다.

또 수육으로 조리해 먹을 수 있는 '국내산 돈아다리(냉장, 100g)'를 정사가에서 31% 할인한 1000원대에 판매한다. 브랜드 수육은 제외된다.

상온 즉석 국당류 골라담기 행사도 진행한다. 골라담기 행사 적용 상품은 '하림 더미식상온 즉석국당 6종(200g, 각)'으로, 3개를 4900원대에 구입할 수 있다. 직접입 입점품목은 상이하다.

특히 1인 가구가 한 번에 먹기 적합하도록 기존 400g 내외의 상품을 200g 소용량

으로 기획해 이마트 단독으로 판매한다. '닭개장', '묵은지 두부 김치찌개', '소고기 육개장', '소고기 미역국', '우렁 된장찌개', '소고기 못국' 등 인기 국당류 6종으로 구성돼 취향에 맞게 고를 수 있다.

이외에도 이마트는 고객들이 빈번하게 구매하는 40개 생필품을 엄선해 혜택가에 선보인다.

'풀무원 국산콩 콩나물(340g)', '서울우유 1L', '삼양라면(120gx5개)', 'CJ 백설 하얀설탕(1kg)' 등 식재료를 비롯해 '코디 맘껏양껏 물티슈 110매(꺾)', '온더바디 플라워비디워시 2종(체리블라썸/아이리스·900g·각)' 등 일상용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나다운 기자